

# 상영관 점유율 63%... “1000만? 독과점 결과”

시민단체, 배급사 디즈니 고발 논란 해소할 대책없어 큰문제 문체부 스크린 상한제도 말뿐 “영화 상생하는 방안 마련해야”

‘겨울왕국2’가 광복 흥행을 이어가는 만큼 상영 독과점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전국 극장 상영관의 대부분을 ‘썩살이’한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다. 관객의 높은 선호도를 반영했다는 멀티플렉스 극장 체인의 시장 논리에 맞서 영화계는 문화 콘텐츠인 영화에는 제도적 지원과 규제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개봉 11일 만인 1일 누적 858만(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관객을 동원한 ‘겨울왕국2’가 늦어도 이번 주말 1000만 관객을 돌파할 전망이다. 애니메이션으로는 처음 1000만에 성공한 1편보다 한 달여 빠른 속도다.

폭발적인 기록만큼 상영 독과점 논란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가 폭발적인 흥행 기록을 써가는 가운데 상영 독과점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사진제공 |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과 가열되고 있다. 한 편의 영화가 극장 상영관 대부분을 독점하는 상황이 공정한 시장 경쟁을 해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겨울왕국2’는 1일 상영점유율 62.5%(상영횟수 1만3468회)를 기록했다. 개봉 2주째 주말이었는데도 개봉일 상영점유율(63%)과 비슷하다. 11월23일

과 24일에는 각각 73.4%, 73.9%까지 치솟기도 했다. 앞서 4월24일 개봉한 ‘어벤저스:엔드게임’은 더 심각했다. 개봉 첫날 상영점유율 80.8%(상영횟수 1만2544회)로 출발했고, 2주째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상영 독과점 논란을 야기했다.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시민단체 서

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는 1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겨울왕국2’ 투자배급사인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책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2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규정 등에 따르면 1개 사업자가 50% 이상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건 위법이다”고 밝혔다.

‘겨울왕국2’나 ‘어벤저스’ 시리즈처럼 관객 선호도가 월등히 높은 영화가 개봉할 때마다 촉발되는 논란이지만 이를 해소할 만한 제도나 장치는 전무한 상태다. 박양우 문화체육부장관이 4월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진척되지 않고 있다. 영화계가 정부에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이유다. ‘영화 다양성 확보와 독과점 해소를 위한 영화인대책위’(반독과점연대) 권영락 운영위원은 “관객이 좋아하는 영화를 겨냥하는 게 아니라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g011024@donga.com

## ‘1인 토크쇼’ 이동욱은 왜?

‘...토크가 하고 싶어서’ 4일 첫방 “주병진 선배님 보면서 키운 꿈”



이동욱

연기자 이동욱이 SBS 새 예능프로그램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로 토크쇼 진행자로 나선다. 한동안 TV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1인 토크쇼’의 부활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모은다.

4일 밤 10시 첫 방송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동욱은 연예계를 비롯해 사회 각 분야의 유명인사를 초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2000년 ‘김해수의 플러스유’ 이후 19년 만에 SBS가 새롭게 막을 여는 ‘1인 토크쇼’의 주역으로 그는 “주병진·이홍렬 선배님의 토크쇼를 보고 키운 로망을 뒤늦게 이뤘다”고 말했다.

2012년 SBS ‘강심장’, 올해 7월 엠넷 ‘프로듀스X101’ 등을 진행한 경험을 살리겠다는 그는 2일 서울 목동 SBS 사옥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1대 1로 나누는 대화를 통한 깊이 있는 이야기”에 방점을 찍었다. “‘강심장’ 때 여러 사람들의 인생사를 들은 게 개인적으로 유익했고 연기에도 도움이 됐다”는 그는 “매회 140여 장에 달하는 초대손님에 관한 사전정보”도 철저하게 익히고 있다.

그가 선택한 첫 번째 초대손님은 배우 공유다. 2016년 tvN ‘도깨비’로 호흡을 맞춘 후 이동욱과 절친한 사이가 된 공유는 초대에 흔쾌히 응했다. 이동욱은 “덕분에 프로그램에 금방 적응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이동욱은 최근 투표 조작 의혹에 휩싸인 ‘프로듀스X101’ 관련 논란에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내 일을 멈출 수는 없다”며 “개인적으로 출연자들과도 여전히 연락을 나누고 있다. 진행자로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 팬도, 멤버도 “해체하자”... ‘엑스원’ ‘아이즈원’ 곧 결판

CJ ENM, 조만간 해결책 내놓을 듯 “투표 결과 원본 데이터 공개는 고민”

케이블채널 엠넷 오디션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 조작 논란으로 해체 기로에 선 프로젝트 그룹 엑스원과 아이즈원이 올해 안에 향후 행보를 결정한다.

2일 방송가에 따르면 엠넷을 보유한 CJ ENM은 “각 그룹 멤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멤버들과 소속사 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다 최근 해체 쪽으로 뜻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의 향후 행보를 결정해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듀스’ 시리즈 연출자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책임프로듀서)가 투표 조작 혐의를 시인한 만큼 두 그룹의 활동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하루 빨리 끝내기 위해서다. 또 “멤버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며 팀 유지를 주장했던 엑스원의 팬들까지 해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더 이상 그룹 활동을 이어갈 명분도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팬들은 1일 “연출자들의 추가 혐의가 드러나는 시점에서 더 이상 무책임하게 엑스원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시간이 길어질수록 멤버들의 불명예와 사생활 침해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며 조속한 그룹



엠넷 ‘프로듀스’의 투표 조작 논란에 아이즈원(사진)과 엑스원이 올해 안에 해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스포츠동아DB

해체와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멤버들과 팬 및 모든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멤버 개개인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보상도 해 달라”고 주장했다.

CJ ENM 측은 이런 기류에 따라 4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MAMA(엠넷아시아안무직어워즈) 이후 이와 관련한 사항을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앞서 “피해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만큼 공식 사과와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프로듀스’ 시리즈 조작 혐의를 둘러싸고 팬들이 요구하는 시청자 문자 투표 결과의 원본 데이터 공개 여부에도 CJ ENM 측은 2일 현재까지도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개 경우 제작진 개입으로 순위가 바뀔 멤버가 밝혀지면 2차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CJ ENM 한 관계자는 2일 “여러 사항을 무시할 수 없어 원본 데이터 공개는 좀 더 고민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 ‘추리의 재미’로 자존심 지킨 ‘VIP’

SBS ‘VIP’가 유일한 지상파 월화드라마의 자존심을 지켰다. 8회 만에 11.4%(11월 26일, 이하 닐슨코리아)로 가파른 시청률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방송인 서정훈·연기자 정해인 등 톱스타를 내세운 예능프로그램들과 경쟁에서도 당당히 승기를 잡았다.

‘VIP’는 11월25일 KBS 2TV ‘조선로코 녹두전’ 종영 후 지상파 방송사의 유일한 월화극으로 남았다. KBS는 후속으로 월·화요일에 각각 예능프로그램인 ‘정해인의 걸어보고서’와 ‘개는 훌륭하다’를 편성했다. MBC는 9월24일 ‘웰컴2라이프’를 끝으로 월화드라마를 잠정 중단하고 ‘마이 리틀 텔레비전V2’와 ‘편애중계’를 각각 방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VIP’는 시청 유입 장벽이 드



SBS ‘VIP’의 한 장면

라마보다 비교적 낮은 예능프로그램과 경쟁에서 다소 불리한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여기에 ‘걸어보고서’는 최근 대중과 가깝게 소통하는 정해인이 처음으로 예능프로그램에 나선 무대이며, ‘편애중계’도 예능프로그램에서 맹활약하는 서정훈·안정

8회만에 11.4%...동시간대 선두 예능프로와 경쟁서도 승리 잡아

환과 메이저리거 출신 김병현이 출연한다는 화제성이 더욱 컸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VIP’는 11월26일 이전 회차보다 시청률 3.3% 포인트를 끌어올려 동시간대 선두주자 자리를 굳혔다. 반면 ‘걸어보고서’ 등은 2~3%대에 머물렀다.

이는 ‘VIP’의 주인공 장나라의 ‘남편 외도 상대 찾기’를 중심에 둔 스토리가 입소문을 얻은 결과라는 시선이 많다. 특히 빠른 전개로 장나라의 극중 남편 이상윤의 ‘외도 상대’를 표적으로 지목하며 반전을 줬다. 시청자들은 “아직 남은 비밀이 있을 것”이라며 추리를 이어가고 있다. 장나라를 비롯해 이청아·표예진·곽선영 등 연기자들의 ‘기싸움’도 호평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연예뉴스 HOT 4

박보검, 3년연속 ‘MAMA’ 호스트



박보검

한류스타 박보검이 3년 연속 ‘MAMA’의 호스트로 나선다. 박보검은 4일 일본 나고야돔에서 열리는 ‘2019 엠넷아시아뮤직어워즈(MAMA)’의 진행자로 발탁돼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3년 연속 일본에서 열리는 ‘MAMA’를 진행한다. 박보검은 CJ ENM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문자 투표 조작 파장에 따른 여론 악화에 행사 개최가 임박해서야 출연을 결정할 정도로 고민했지만 케이팝 등 한류 콘텐츠를 소개하는 역할에 무대에 나서기로 했다.

## 홍종현 임대 “훈련 잘 받겠다”

연기자 홍종현(29)이 2일 현역 임대했다. 홍종현은 이날 충남 논산훈련소 입소 직전 팬들에게 “신기하고, 떨리며 긴장 된다”면서 “군대에서 나이 많은 후에 속할 텐데 동기들과 잘 어울리며 건강하게 훈련받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2007년 모델로 데뷔해 연기 활동을 시작한 그는 ‘마마’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 ‘왕은 사랑한다’ 등 드라마를 통해 얼굴을 알렸다. 최근에는 9월 종영한 KBS 2TV 주말드라마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에 출연했다.

## FNC엔터, 전국 공채 오디션 실시

방송인 유재석, 그룹 씨엔블루 등이 소속된 기획사 FNC엔터테인먼트가 전국 공채 오디션 ‘FNC 픽업 스테이지:YOUTH’를 개최한다. 2020년 1월4일 광주를 시작으로 대전, 대구, 부산, 서울 등 5개 지역에서 진행한다. 참가 희망자는 성별과 국적 제한 없이 2002년 이후 출생자면 모두 가능하다. 모집 분야는 보컬, 랩, 댄스, 악기, 연기, 비주얼 부문이다. 1·2차 및 최종 오디션을 거쳐 최종 합격자에게는 연습생 계약 및 트레이닝 기회를 부여한다.

## 김준수, 10년만에 라디오 출연



김준수

가수 겸 뮤지컬배우 김준수가 10년 만에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김준수는 2일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 초대손님으로 나섰다. 그룹 동방신기 멤버로 활동한 이후

10년만의 라디오 출연이다. 그는 입담과 함께 내내 2월 막을 여는 ‘드라큘라’의 러빙 유킵스미 얼라이브(Loving You Keeps Me Alive)를 라이브로 들려줬다. 김준수는 11일 방송하는 MBC ‘공유와 집’에도 출연하며 향후 활발한 방송활동을 기대하고 있다.